

국내시장 80% 점유... 세계 1위 중국 따라잡기 시간 문제

전국 1등 지역 명품

① 완도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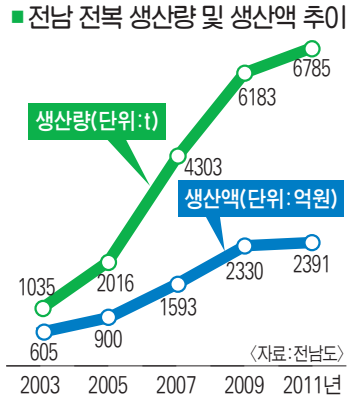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FTA)로 대변되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지구촌은 '승자독식' 원칙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감안할때 '1등 명품'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전남의 향토자산을 세계적인 1등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점유율 1위 품목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편집자註)

전북산업 10년간 25배 급성장 전남 농수산물 중 경쟁력 단연 최고 '억대부농' 가구 중 '전북부자' 590가구나

전북은 전남의 향토자산중에서 세계적인 1등 명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이다. 전남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 1위 품목인 전남산 농수산물 20개 가운데 FTA 시대에도 살아 남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12개를 꼽았다. 12개 품목에서도 전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단연 경쟁력이 최고였다. 국내 전북산업은 10년동안 무려 25배나 성장했다. 2001년 연간 95에 101억원에 불과하던 전북산업은 2011년에는 6941에 2514억원으로 커졌다. 이는 세계 전북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생산국이 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연간 6785에

2391억원이 생산돼 전국대비 비중이 각각 98%(생산량)과 95%(생산액)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하면 완도를 떠올릴 정도로 완도는 국내 최대의 산지다. 양식면적 기준으로 전국대비 77%, 양식량으로는 68.8%, 공급량에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에서 양식하는 전북은 모두 4억5600만 마리로 라틴아메리카(중남미) 33개국 인구 수(4억5000만명)보다 많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제논리도 전북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급량보다 수요량 증가폭이 더 커 생산량 증가에도 전북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kg당 15마리 짜리의 가격은 2007년 3만원에서 요즘은 4만원대로 올랐다.



생산량 증가에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전남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억대부농'은 2220가구인데 이 가운데 27%인 590가구가 전북양식 어가다. 전북양식 억대부농의 76.4%(451가구)는 완도에 몰려 있다.

완도 전북의 명성뒤에는 어업인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완도전북주식회사가 있다. 2009년 3월 어업인과 완도군,수협 등 615명이 34억4000만원을 출자해 만든 완도전북주식회사는 현재 출자자 수 1212명에 자본금 88억1100만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첫해 106에 46억원이던 매출이 2011년에는 574에 220억원으로 4.4배나 급증했다. 유통업자에게 30%까지 덤으로 얹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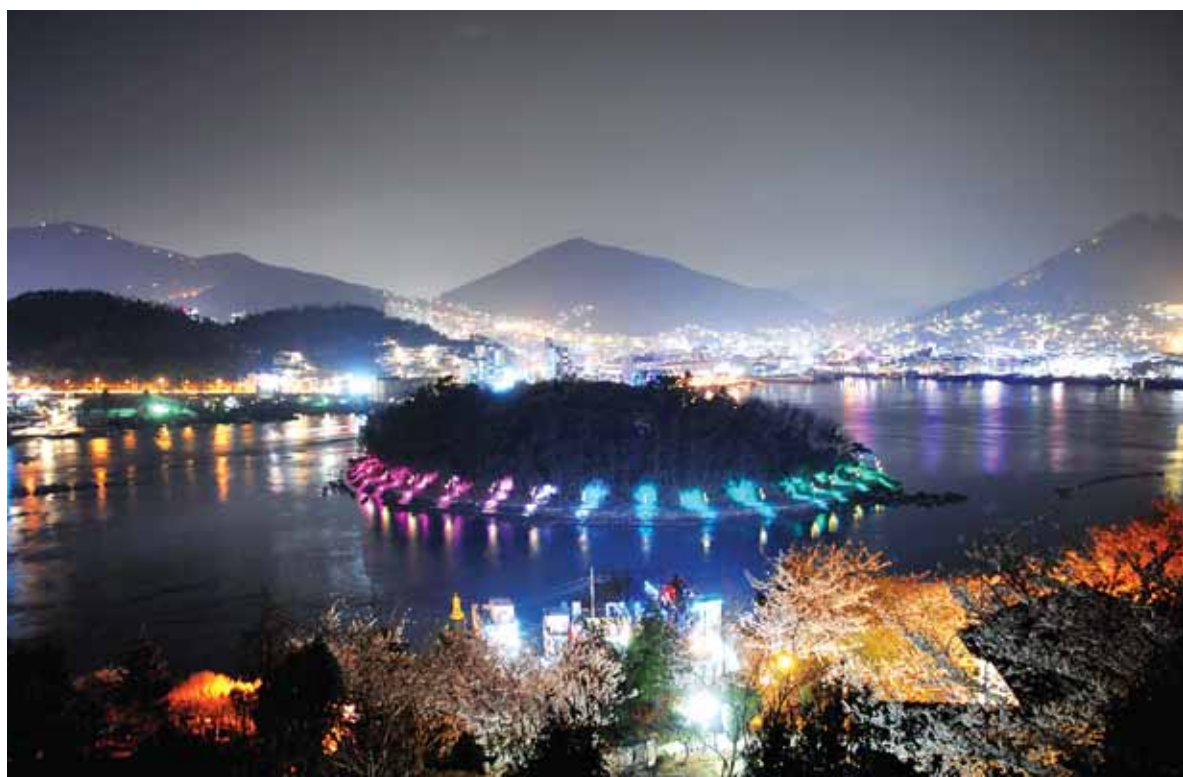
던 물량도 10%대까지 줄었고 2~4개월 만에 받던 대금결제 기간도 평균 7일로 단축됐다.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지난해에만 1244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 2월 전남도로부터 수출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북양식 생산자들의 조직화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수출 물량의 대다수가 활전복이고 가공식품 개발이 안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수출 물량의 99%가 일본에 치우쳐 있고,일본의 소비자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른 점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도·진도·신안 가운데 적지를 선정해 200ha(60만평)의 대규모 가두리 양식장을 조성하는 일명 전북 양식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 양식섬이 조성되면 연간 1000여의 전북이 생산돼 세계적 1등 명품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전북은 지역 명품 특산물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아 FTA시대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 밤바다 보러 오세요"
20일부터 여수 곳곳에서 화려한 여수 밤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박람회장 재개장을 대비해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여수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자산·돌산·거북선·성산공원 등 야간경관 조형 점등시설을 11곳으로 늘려 10월20일까지 일몰시각부터 새벽2시까지 점등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유채꽃 안 피어...해남 두륜산 유채축제 포기

방문객 위해 바람개비·허수아비 설치 불거리 제공

이상기후 탓에 유채꽃이 안 피어 축제가 취소됐다. 해남 두륜산유채축제추진위원회는 18일 "지난 16일 추진위원회의에서 유채의 생육 저하로 꽃이 만개하지 않아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유채단지에서 그동안 삼산면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바람개비(1500개)와 허수아비(150개), 각종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유채 포토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사를 준비해 온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화합하기 위한 한마음행사를 26일 유채단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두륜산 유채축제 개최를 기다리는 해남군민들과 외지 관광객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고 풍성한 불거리가 있는 두륜산 유채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륜산 유채축제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삼산면 신흥리 일원에 조성한 15만평의 경관 보전 유채단지를 활용해 축제를 개최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겨울철 한파로 인해 유채꽃이 만개하지 않으면서 축제 취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설명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장흥 한우육종단지 조성

우량암소 84두 입식...명품한우 생산 가속화

장흥군 한우육종단지가 최근 유전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우량암소 84두 입식을 끝내면서 본격적인 수정란 이식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향후 국내에서 개발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극조생종 원종 '그린팜' 시험포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18일 "관산을 부평리 일원에 조성된 한우육종단지가 우수한 지역 한우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한우육종단지는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제고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지난해 개방형 축사 시설 신축에 이어 최근 유전력이 평가된 우량 암소 84두의 입식을 끝냈다. 특히 한우육종단지를 수정란이식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입식된 번식우 가운데 10두는 수정란 이식을 위한 공란우로 활용된다. 군은 이를 10두에 대해 개체유전능력과 후대정보 분

석과 함께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DNA 분석을 통한 친자 감별도 실시했다.또 한우육종단지 내 조사료 포장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가운데 극조생종 '그린팜' 원종(原種) 생산 시험포를 조성해 생산된 종자 전량을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영민 장흥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남진 장흥 한우 육종단지는 우수형질의 한우 육종을 골라내 장흥만의 특색있는 명품한우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수정란 이식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한우 암소육종 가속화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1952 회갑의 해

정남진 투어 | 우림여행·클럽모두 | 헬로우 제주 | 투어클럽
TEL. 1577-7616 TEL. 228-1990 TEL. 369-5300 TEL. 382-8201